2023년 06월 02일

증권

산업이슈 브리프 |

업황지표 둔화

Check Point

- 5월 증시 관련 업황지표 둔화
- 2Q 브로커리지 수익 개선 폭 기대만큼 크지 않을 듯
- 채권관련 손익 둔화와 추가비용 인식 가능성 있으나 업종주가는 기반영

Analyst 전배승 _ 02 3779 8978 _ bsjun@ebestsec.co.kr

5월 증시 관련 업황지표 둔화

▶ 5월 중 일평균 거래대금은 18.0조원으로 4월의 26.4조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4월말 CFD 사태로 인한 급격한 투자심리 위축과 2차전지 등 개인거래가 집중된 업종에서 주가조정이 나타나면서 거래대금이 감소. 4~5월 평균 일평균 거래대금은 22.2조원으로 1분기의 17.5조원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5월초 이후로는 1분기와 큰 차이가 없는 16~17조원 수준으로 둔화

▶ 개인의 거래강도 약화로 3~4월 중 800% 이상을 기록했던 코스닥의 시가총액 회전율은 5월 중 500%대로 하락하며 역사적 평균 수준으로 회귀. 이에 4월 19조원까지 상승했던 개인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월 들어 12조원으로 하락하며 1분기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 개인 거래비중 역시 5월 중 67%로 3~4월의 70% 이상 수준에 비해 하락

▶ 증시 주변자금 흐름 또한 둔화양상을 보임. 4월말 CFD 사태 이후 고객예탁금과 신용잔고의 동반 위축이 나타나고 있음. 다만 5월 중순 이후로는 추가적인 자금이탈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양호한 증시여건과 함께 50조원을 하회했던 고객예탁금 규모가 최근 52조원 수준까지 재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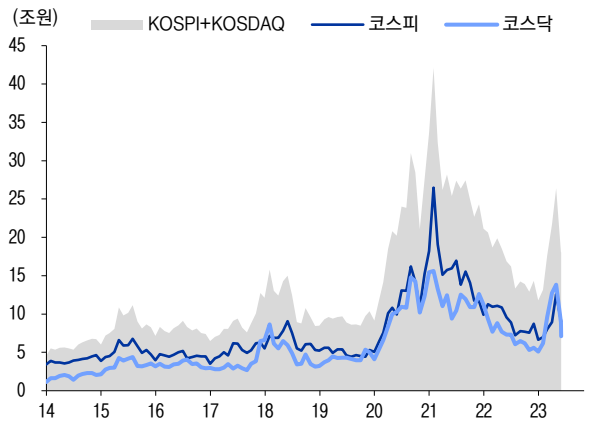
2Q 채권관련 이익 축소와 추가비용 인식 가능성

▶ 6월 거래대금 수준이 5월과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2분기 중 거래대금은 1분기 대비 20% 가량 증가가 예상되고 신용잔고 평잔 또한 확대되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은 1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선 폭은 1분기에 비해 둔화될 전망

▶ 운용이익의 경우 4~5월 중 금리변동성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시장금리가 재차 상승하면서 1분기 호조를 보였던 채권관련 손익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주요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ELS 및 주식관련 운용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 참고로 주요국 증시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3분기에도 ELS 조기상환 구간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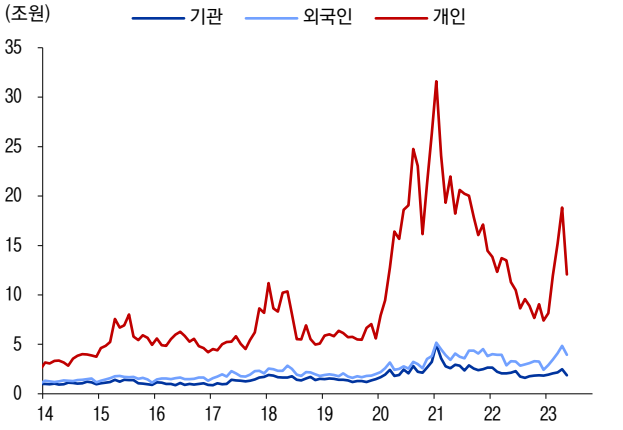
▶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대한 PF 리스크 관리조치의 일환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PF여신에 대한 신속한 충당금 적립 및 상각조치를 권고하고 있어 2분기 중 추가적인 PF관련 비용인식이 예상됨. 또한 CFD 미수채권 관련비용 또한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여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 낮춰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업종주가는 이미 이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증시여건 변화양상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

그림1 일평균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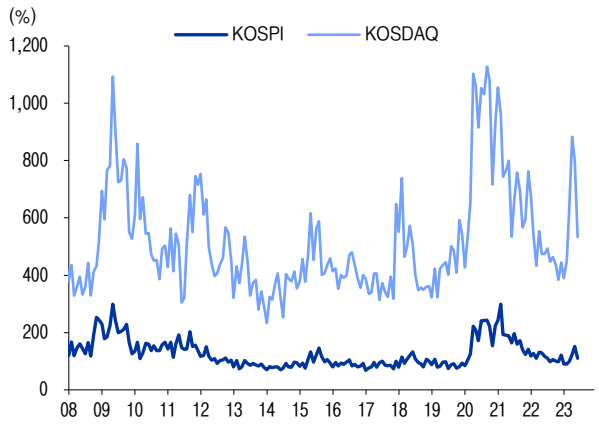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투자주체별 거래대금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회전율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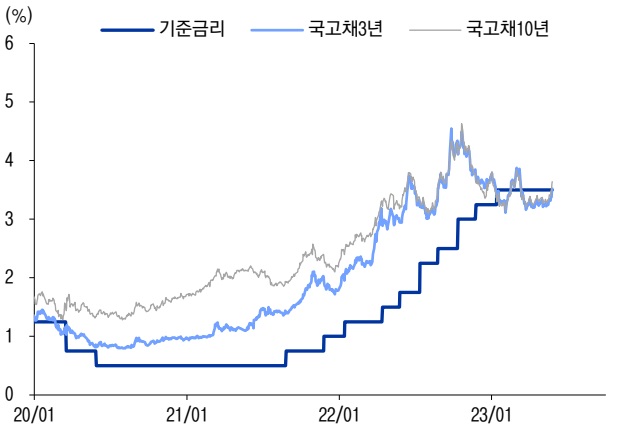
그림4 고객예탁금 추이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신용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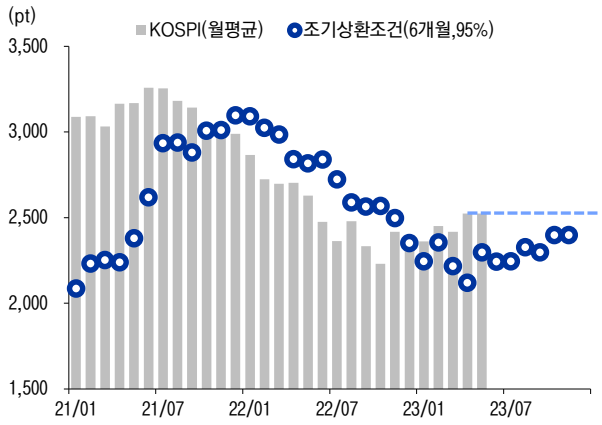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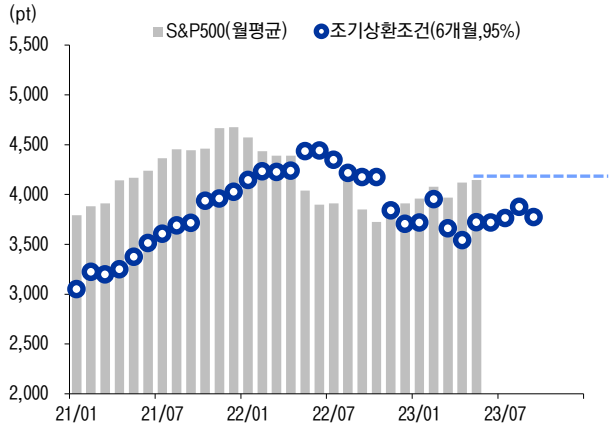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KOSPI 조기상환 요건(지수형 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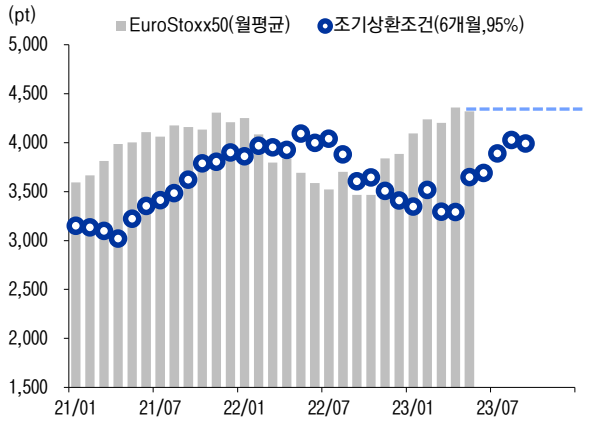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S&P 500 조기상환 요건(지수형 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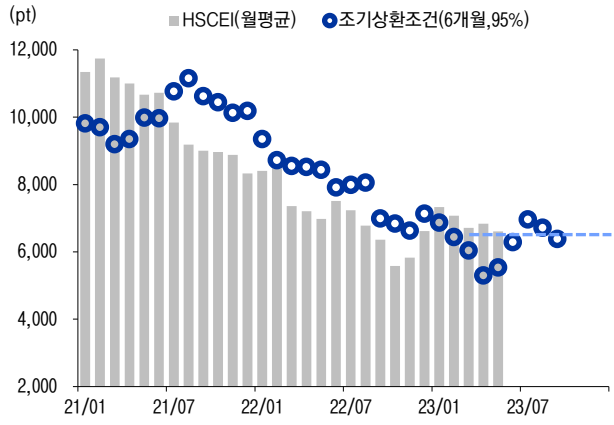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EuroStoxx 조기상환 요건(지수형 ELS)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HSCEI 조기상환 요건(지수형 ELS)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發 불안요인 선제적 차단 방안	
조치1 (신규)	• PF-ABCP를 대출로 전환하여 만기 불일치 문제 해소
조치2 (신규)	• 부실자산 조기상각을 통한 건전성 관리 강화
조치3 (연장)	3-1. PF-ABCP 매입 프로그램 ('23.5월말 종료예정 → '24.2 월말까지 연장 3-2.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 ('23.6월말 종료예정 → '23.12월말까지 연장)
조치4	•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위험값(NCR) 산정체계 전면 재검토 추진

자료: 금융위원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증권사별 CFD 잔고(3월말 기준)

증권사명	CFD잔액
교보	6,180억원
키움	5,576억원
삼성	3,503억원
메리츠	3,446억원
하나	3,400억원
유진	1,485억원
DB	1,400억원
한국투자	1,126억원
KB증권	664억원
신한투자증권	582억원
SK증권	139억원
NH투자증권	134억원
유안타증권	63억원
합계	**2.8조원**

자료: 언론보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ot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1.3%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기대	8.7%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2. 4. 1 ~ 2023.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